

한국인의 문화적 자기관과 감정표현불능증의 관계: 세대에 의해 조절된 정서표현양가성 및 정서억제 연속매개과정 모형*

김 해 진¹⁾ 권 소 영²⁾ 정 선 호³⁾ 이 동 훈[†]

전통적인 한국 사회는 동양의 집단주의 문화권으로 분류되어 왔지만, 1970년대 탈냉전과 더불어 세계화와 정보화의 흐름 속에 서양의 개인주의 문화와 가치가 젊은 층을 중심으로 한국 사회에 빠르게 스며들었다. 짧은 시기에 급변했기 때문에, 동시대를 살아가는 세대 간에 문화적 자기관의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이로 인해 감정표현 및 억제와 관련된 심리적 문제가 세대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20대에서 60대에 이르는 한국인 성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개인의 문화적 자기관과 감정표현불능 수준, 그리고 정서표현양가성과 정서억제 수준을 조사하여, 상호협조적 자기관, 상호독립적 자기관 및 감정표현불능증의 관계, 그리고 그것을 매개하는 정서표현양가성 및 정서억제의 과정을 살펴보았다. 그리고 연구대상자의 출생연도를 기준으로 산업화 세대(1970년 이전 출생)와 정보화 세대(1970년 이후 출생)로 구분하고, 각 변인의 세대 차이와 정서표현양가성과 정서억제의 매개 과정에 대한 세대의 조절 효과를 검증하였다. Hayes(2022)의 PROCESS macro를 이용하여 분석한 결과, 첫째 문화적 자기관의 상대적 독립성(상호협조적 자기관에 비하여 상호독립적 자기관이 높은 정도를 계산한 값)이 정서표현양가성과 정서억제를 연속매개하여 감정표현불능증에 영향을 주는 연속매개모형이 유의하였다. 이는 개인의 상대적 독립성이 약할수록 정서표현양가성과 정서억제 수준이 순차적으로 높아져서 감정표현불능 수준이 높아짐을 의미한다. 다음으로 연속매개모형에서 세대의 조절효과를 탐색한 결과, 정서억제에서 감정표현불능증으로 가는 경로를 세대 변인이 조절하였다. 산업화 세대의 경우 정서억제 수준이 높아도 감정표현불능 수준이 높아지지 않는 반면, 정보화 세대는 정서억제 수준이 높을수록 감정표현불능증의 수준이 높아짐을 의미한다. 본 연구 결과는 세대의 문화적 가치관에 따라 정서조절방략이 다르게 형성되었을 가능성을 시사하며, 정서억제처럼 역기능적인 정서조절방략이라 할지라도 자신이 속한 세대의 문화적 배경에 따라 그것의 부정적인 영향력이 다를 수 있음을 함의한다.

주요어 : 문화적 자기관, 감정표현불능증, 정서억제, 정서표현양가성, 조절된 매개효과, 세대

* 이 논문은 2019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NRF-2019S1A5A2A03045884).

1) 부산대학교 심리학과 박사수료

2) 부산대학교 심리학과 박사수료

3) 경희대학교 경영학과 교수

† 교신저자: 이동훈, 부산대학교 심리학과 교수, (46241) 부산광역시 금정구 부산대학로 63번길 2

Tel: 051-510-2132, E-mail: dhlee@pusan.ac.kr



Copyright ©2023, The Korean Psychological Association of Culture and Social Issues
This is an Open Access article distributed under the terms of the Creative Commons Attribution Non-Commercial License (<http://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4.0/>) which permits unrestricted non-commercial use, distribution, and reproduction in any medium, provided the original work is properly cited.

문화는 정서를 표현하고 조절하는 규범적 방식 뿐만 아니라 정서 경험을 구성하는 방식에도 영향을 미친다(De Leersnyder et al., 2013; Matsumoto, Yoo, & Fontaine, 2008). De Leersnyder와 연구자들(2013)은 정서의 문화적 조절(cultural regulation of emotion)이라는 관점에서 정서와 문화적 가치, 이상, 목적 및 관심을 한 선상에 놓고 정서 경험에 영향을 주는 문화적 과정을 총체적으로 살펴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문화적으로 적절한 정서 경험을 할 수 있도록 이끄는 모든 처리 과정에 주목하였다.

이 논의에서 정의하는 적절한 정서 경험이란, 문화 내에서 적절하고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맺을 수 있도록 이끄는 정서 경험을 뜻한다. 따라서 문화가 추구하는 방향에 따라 각 정서범주에 대한 가치평가가 다르며, 정서를 어떻게 조절하고 타인과 교류하는 것이 좋은 사람인가에 대한 평가도 달라질 수 있다. 예를 들어, 미국처럼 독립적이고 개인주의적 문화권의 사람들은 일상에서 자부심, 즐거움, 분노와 같은 사회적 관여가 낮은(socially disengaging) 정서를 더 많이 경험하는 반면에, 일본처럼 상호협조적이고 집단주의적인 문화권의 사람들은 사회적 관여가 높은(socially engaging) 정서인 존경, 수치심 등을 일상에서 더 많이 경험한다(Kitayama et al., 2006). 사회적 관여가 낮은 정서들은 자신과 타인을 구분 짓고 개인의 자율성을 더 중시한다면, 사회적 관여가 높은 정서들은 스스로를 타인과 관련 있는 존재로 여기며, 타인과 어떻게 함께할 것인지 신경 쓰는 걸 중요하게 여길 때 경험하는 정서들이라 할 수 있다(De Leersnyder et al., 2018). 이 결과는 문화모형에 따라 구성되는 '자기관(self construal)'에 차이가 존재하며,

그에 따라 주된 경험 정서가 달라질 수 있음을 함의한다.

문화는 사회 속에서 어떤 사람이 좋은 사람이고, 관계를 맺을 때 바람직한 행동 양식은 무엇인지 규정함으로써 개인의 자기관에 영향을 미친다. Markus와 Kitayama(1991)는 개인의 자기관이 문화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주장하며 문화적 자기관 이론(cultural self-construal theory)을 제안하였다. Markus와 Kitayama(1991)는 구성될 수 있는 자기관 유형을 크게 상호독립적 자기관(independent self-construal)과 상호협조적 자기관(interdependent self-construal)으로 나누어 설명한다. 연구자들은 개인주의 문화권에 속한 사람들은 상호독립적 자기관을 지닐 가능성이 높다고 제안한다. 이들은 스스로를 집단과 구분되는 독립된 개인으로 규정하고 자유롭게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표현하며, 개인적 목표 달성을 위해 노력하는 것을 가치롭게 여기는 경향이 있다. 반면, 집단주의 문화권의 사람들의 경우에는 상호협조적 자기관으로 자신을 개념화하는 경향이 높다고 주장한다. 이들은 자신을 소속된 집단의 일원으로 정의하며, 구성원들과의 유대와 조화를 위해 자신의 말과 행동을 스스로 조절하고 집단의 화합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면이 있다고 제안한다. 두 자기관은 타인과의 관계 지각과 사회적 관계를 맺는 방식에서 차이를 갖고 있기 때문에 타인에게 정서를 표현하거나 조절하는 방식도 다를 수 있다.

대표적인 정서조절방식에는 정서억제와 인지적 재평가가 있는데 정서억제는 현재 느끼는 정서가 겉으로 드러나지 않게 표현을 억누르는 것이라면, 인지적 재평가는 감정을 유발한 사고나 사건을 재평가하여 정서를 조절하는 방법이다(Gross & John, 2003). 정서억제는

인지적 재평가에 비해 건강하지 못한 정서조절기제로 알려져 있으나, 정서억제의 부정적인 효과는 문화적 가치에 따라 다르며, 미국에 비해 집단주의 문화가 우세한 한국에서는 정서억제가 덜 부적응적이라는 보고가 있다(이은경 외, 2009; Butler et al., 2007; Sun & Lau, 2018).

그러나 집단주의 문화권에서 상호협조적 자기관이 높은 사람들이 잦은 정서억제를 사용하는 것이 개인의 심리적 기제에 적응적이나 부적응적이나에 대한 논의는 여전히 분분하다. 왜냐하면 정서억제를 많이 사용하는 것이 건강의 기능을 저하하고 전체적인 삶의 적응(예, 삶의 만족도)을 낮추는 것을 예측한다고 알려져 있기 때문이다(Gross & Muñoz, 1995; John & Gross, 2004). 6가지 정서조절방략과 정신병리간의 관계를 살펴본 메타분석 연구에서도 정서억제 사용이 우울, 불안, 그리고 섭식장애와 높은 관련이 있음을 보고하였다(Aldao et al., 2010).

정서조절 방법으로 정서억제를 많이 사용하는 사람들은 정서를 느끼거나 인식하는 것에 어려움을 겪고 있을 가능성이 높으며, 이 관계는 부적응적인 심리상태(예, 사회불안, 우울)를 높게 예측하기도 한다(Eastbrook et al., 2014; Subic-Wrana et al., 2014). 특히 자신이 어떤 정서를 느끼고 있는지 인식하는 능력(emotion awareness)의 저하는 감정표현불능증(alexithymia)을 겪을 가능성을 높인다(Maroti et al., 2018). 감정표현불능증은 자신의 정서를 인식하지 못하고, 표현하지 못하는 복합적인 상태를 일컫는다(Taylor, 1984; Taylor, 2000). 감정표현불능증의 특징에는 기분이나 욕구를 탐지하는 사고에 한계가 있으며, 꿈을 잘 회상하지 못하고, 신체 감각과 정서 상태 간의 구

분을 어려워한다. 또한 얼굴표정이 잘 드러나지 않고 자기인식이나 공감 능력이 부족하다는 특징이 있다(Bagby & Taylor, 1997; Sifneos, 2000). 그리고 감정표현불능 수준이 높은 사람들은 자신의 정서 경험에 접근하는 것을 어려워하기 때문에 자신보다는 타인에 대한 이야기를 더 많이 하며(Meganck et al., 2009), 사회적으로 대인관계를 회피하는 경향이 있다(Spitzer et al., 2005; Vanheule et al., 2007). 따라서 정서 인식에 어려움을 겪고 정서를 잘 표현하지 못하는 경우 대인관계에서도 어려움을 겪기도 한다.

감정표현불능증의 원인을 사회적 관점에서 바라보는 연구자들은 집단주의 문화나 개인주의 문화냐에 따라 감정표현불능 수준이 달라질 수 있다고 주장하며, 특히 집단주의 문화권의 사람들이 감정표현불능증 점수가 더 높다고 보고한다(Le et al., 2002; Dere et al., 2012; Dere et al., 2013; Ryder et al., 2018). 개인주의 문화의 사람들은 정서를 표현하고 공감 받고 싶어 한다면, 집단주의 문화의 경우 직접적이고 공개적인 정서표현을 거부하는 경향이 있다(Oyserman et al., 2002; Wellenkamp, 1995). 그렇기 때문에 연구자들은 집단주의 문화권의 사람들이 정서 표현을 잘 하지 못하게 되면서 감정표현불능 수준이 높아지는 것이라 주장하였다. Konarth 외(2011)는 문화적 자기관을 통해 감정표현불능증에 미치는 문화의 영향을 확인하고자 했다. 회귀분석 결과, 상호독립적 자기관 점수가 클수록 감정표현불능증 점수가 낮아졌다면, 상호협조적 자기관이 높은 경우에는 감정표현불능증 점수가 높아졌다. 또한 백인에 비하여 동양계 미국인 참가자들의 상호협조적 자기관 점수가 더 높았고, 감정표현불능증 점수도 더 컸다. 연구 결과들을 종합

하면, 집단주의 문화권의 사람들이 상호협조적 자기관 점수도 높으며, 집단의 화합을 중시하고 타인과의 관계를 고려하는 사람들이기에 상대적으로 더 높은 감정표현불능 수준을 가진다고 요약할 수 있다.

하지만 문화에 따라 정서표현과 정서조절 방식이 달라짐을 고려했을 때, 문화적 자기관이 감정표현불능증을 직접적으로 예측하기 보다는 문화적 자기관에서 비롯된 정서표현 및 조절 방식이 감정표현불능증의 수준을 변화시킬 가능성이 있다. 이에 권소영 등(2019)은 한국 대학생들의 문화적 자기관과 감정표현불능증 간의 관계를 매개하는 정서표현양가성과 정서억제의 과정을 살펴보았다. 분석 결과, 선행연구와 다르게 상호협조적 자기관과 감정표현불능증 간의 관계는 유의하지 않았고 오히려 상호독립적 자기관 점수가 낮을수록 감정표현불능증 점수가 높아지는 부적 관계가 유의하였다. 따라서 상호독립적 자기관을 독립변인으로 투입하여 연속매개모형을 분석했을 때, 상호독립적 자기관이 감정표현불능증에 미치는 영향을 정서표현양가성과 정서억제가 순차적으로 매개하는 간접경로가 유의하였다. 선행연구와 달리 권소영 등(2019)의 연구에서는 상호협조적 자기관과 감정표현불능증 간의 관계에서 유의한 결과가 관찰되지 않았는데, 왜 이런 결과가 나타났는지 살펴볼 필요성이 있다.

첫째, 한국에 거주하는 한국인의 경우 상호협조적 자기관이 감정표현불능증을 예측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상호협조적 자기관이 높은 사람들은 자신의 부정적인 정서로 타인에게 영향을 주지 않기 위한 배려의 차원으로써 정서를 억제하는 것이기 때문에 정서억제를 하는 것이 상호협조적 자기의 구성개념에 부

합하여 안녕감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Le & Impett, 2013). Cheung과 Park (2010)은 분노 억제가 우울 수준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면서 상호협조적 자기관에 따른 차이를 살펴보았는데, 분노 억제로 인한 우울 수준 상승이 상호협조적 자기관이 높은 집단에서 그 효과가 더 작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자들은 동일한 경로에서 인종(동양계 미국인과 유럽계 미국인)의 조절효과도 탐색하였는데, 분노억제가 우울에 미치는 효과는 동양계 미국인 집단에서 더 약해지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 결과를 통해 연구자들은 문화 특수적인 정서조절 방식이 존재하며, 동양의 집단문화권 혹은 상호협조적 자기관에 해당할수록 정서억제를 더 많이 하는 경향이 있지만, 우울과 같은 부적응적 기제가 야기되지 않을 수 있다고 제안하였다.

둘째, 참가자 집단이 20대 한국인 대학생에 국한되었기에 나타난 결과일 수 있다. 자기개념은 개인이 살아가는 문화적 배경과 사회적 환경을 반영함과 동시에 개인의 삶의 성숙과 변화도 통합하기 때문에 세대에 따라서 자기관이 달라질 수 있다(예, McCrae & Costa, 1988; Mueller & Ross, 1984). 한국이 점차 개인주의 문화로 변화하면서 20대들은 개인주의 문화의 영향을 더 많이 받았고, 그로 인해 상호협조적 자기관에 따른 유의한 결과가 관찰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다. 장수지와 김수영(2014)의 관련 연구에 따르면 20~50대(1955~1994년생)를 대상으로 한국인의 세대별 문화성향과 공동체의식 간의 관계를 조사했을 때,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수직적, 수평적 집단주의 점수가 높아졌으며, 50대 성인이 다른 젊은 세대들 보다 지역사회 공동체의식이 높았다. 연구 결과는 한국인이 세대

별로 추구하는 문화적 가치관이 다르며, 연령이 낮아질수록 개인주의적 가치관이 우세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그렇기에 한국의 20대 대학생들의 경우 상호협조적 자기관이 감정표현불능증을 예측하는 설명력 높은 변인이 아닐 수 있다.

또한, 문화적 자기관 척도(self-construal scale; Singelis, 1994)를 사용하여 젊은 한국인 집단의 문화적 성향을 살펴본 몇몇 연구들에서 두 가지 문화적 자기관 간의 정적 상관이 관찰되기도 하였다. 권소영 등(2019)의 연구에서는 20대 대학생 집단(2000년대생 이상)을 대상으로 자기관 척도를 평정 받았고, 어유경, 박수현(2018) 그리고 어유경 등(2019)의 연구에서는 주로 20~30대(1979~1999년생)를 대상으로 동일한 척도를 조사하였는데, 모두 상호협조적 자기관 점수와 상호독립적 자기관 점수 간에 정적 상관을 관찰하였다. 이러한 연구 자료는 한국에서 상대적으로 젊은 세대의 사람들이 두 가지 문화적 자기관을 각각 발전시켰을 가능성을 암시하기도 한다. 개인은 상호독립적 자기관과 상호협조적 자기관 모두를 내재화할 수 있는데(Oyserman et al., 2002; Singelis, 1994; Yamada, & Singelis, 1999), 한국의 젊은 집단의 경우 집단주의 문화와 개인주의 문화가 혼재된 환경 속에서 성장하면서 자연스럽게 두 자기관 모두를 구성했을 가능성이 있다.

한국의 문화적 변동 추이를 고려했을 때, 상대적으로 고연령 세대에서도 하나의 문화적 자기관 유형(즉, 상호협조적 자기관)만 우세할 것이라 단정하기도 힘들다. 나은영과 차유리(2010)가 20대부터 50대까지(1951~1990년생)의 한국인 성인 남녀를 대상으로 시대별(1979년, 1998년, 2010년) 가치관 변화 추이를 살펴보았

을 때, 시대가 변하면서 전 세대에 걸쳐 자신 및 가족 중심 개인주의와 남녀평등의식이 증가하였으며, 세대차를 보였던 개인주의, 양성평등, 자기주장성에서 세대차가 줄어드는 결과가 나타났다. 세대차가 줄어든 배경은 50대가 급격한 인식변화를 일으켰기 때문이었는데, 연구자들은 50대가 시대 변화에 맞춰 가치관을 변화시켰기 때문이라고 제안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집단주의 문화가 우세한 시기에 성장한 세대들이 점차 개인주의 문화적 가치관을 수용하고 있지만, 여전히 집단주의 문화적 가치관도 함께 내재하고 있을 가능성을 보여준다.

한국인 대상의 연구들을 정리하면, 2,30대에서는 상호협조적 자기관과 상호독립적 자기관의 정적 상관이 관찰되어 왔고, 50대 이상은 개인주의 가치관을 어느 정도 수용하기 시작했다는 걸 짐작할 수 있다. 종합하면, 한국인은 젊은 세대와 나이 든 세대 모두 하나의 문화적 가치관을 내재화하고 있다고 하기 힘들며, 두 가지 가치관이 공존하며 개인에 따라 상대적인 가중치가 다를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 그러나 성장한 시대에 따라 역사적, 문화적 경험이 다르며, 그에 따라 세대별로 구분되는 고유의 세대 의식을 발전시키고 특유의 행동 양식을 공유해왔다는 것 또한 자명하다(김기연 외, 2003; 최선, 박정수, 2022; 황상민 외, 2003). 따라서 한국인의 감정표현불능증을 예측하는 변인을 탐색하기 위해서는 집단주의 또는 상호협조적 자기관 하나로 설명할 수 없는, 개인이 성장한 시대적 배경과 문화적 특성을 반영하는 세대 집단, 코호트(cohort) 효과에 대한 탐색이 필요하다.

한국의 세대

코호트(cohort)란 Kertzer(1983)가 제안하는 4 가지 유형의 세대 분류 중 하나로, 세대를 동일한 시기에 출생한 집단으로 묶는 것이다. 코호트 관점에서 세대란 비슷한 시기에 같은 시대적 배경 혹은 문화권에서 출생한 사람들이라 할 수 있다. 박재홍(1995)은 출생 시기가 비슷한 사람들이 발달과정에서 역사적·문화적 경험을 공유함으로써 유사한 의식구조와 행동양식을 갖게 되며, 이러한 사람들의 집단을 세대로 정의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그에 따라 박재홍(2009)은 한국의 국내외 정치상황 경험 등을 세대구분의 주요 기준으로 두고 식민지/전쟁체험 세대(1911~1940), 산업화·민주화 세대(1941~1970), 그리고 탈냉전·정보화 세대(1971~2005)로 한국인의 세대를 규정하였다. 특히 박재홍(2010)은 1970년경이 세대 간 문화적 균열의 깊은 골을 형성한 시기로 바라보았다. 집단주의 성향이 강하고 전통적이고 권위주의적이었던 1970년대 이전 세대와 달리 1970년대 이후 출생한 한국인들은 정보화(컴퓨터의 발달)와 세계화(88올림픽의 개최)를 겪으며 글로벌 시민으로 거듭났으며, 민주주의 정착과 사회주의 국가의 붕괴를 겪고 일부 자율화를 통해 새로운 가치관을 허용 받은 세대로 설명하였다. 나은영과 차재호(1999)는 1970년대와 1990년대에 한국인에게 나타난 가치관 변화를 연령별로 비교하여 분석하였는데, 1970년대에 비하여 1990년대에는 가족중심의 개인주의 성향이 더 높아지는 시대에 따른 가치관 변화가 나타났다. 또한 50대는 권위주의적 가치를 더 중요하게 여기는 방향으로 변화했다면, 1970년대의 20대(1941~1950년생)에 비하여 1990년대의 20대(1961~1970년생)는 상대적으

로 탈권위주의 점수가 높아지는 시대차를 보여주었다. 이 연구 결과는 1970년대를 기점으로 한국에서 시대적인 가치관 변화가 일어났으며, 성장한 시대적 배경에 따라 1970년대의 20대와 1990년대의 20대에게 다른 가치관이 형성되어 있음을 암시하였다.

본 연구에서도 1970년을 한국 사회의 변곡점으로 보고, 1970년을 기준으로 산업화·민주화 세대(이후 '산업화' 세대, 1941~1970)와 탈냉전·정보화 세대(이후, '정보화' 세대, 1971~2005)를 비교하고자 한다. 산업화 세대는 집단주의적 가치관이 더 우세한 시기에 성장하였다면, 정보화 세대는 개인주의적이고 자율적인 가치관을 추구하는 경향이 우세해졌을 가능성이 있다. 다만 본 연구에서는 2003년~2005년도 출생자들을 제외한 1971년과 2002년 사이에 출생한 집단만을 정보화 세대로 규정하였는데, 그 이유는 2003년에서 2005년도에 출생한 사람들의 경우 표본을 수집하는 시점(2021년도)에 청소년기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청소년은 만 19세 이상의 성인과 달리 생애주기 단계에서 급격한 신체변화 및 사회적·심리적 변화를 겪는 시기이며, 갑작스러운 변화로 인해 심리적인 혼란을 겪으며 가치관을 정립해가는 과정이기도 하다. 그러므로 상대적으로 사회에서 요구하는 정서신념을 내재화하고 그에 따라 정서표현과 조절방법을 스스로 결정할 수 있게 되었으리라 예상할 수 있는 성인집단을 대상으로 세대를 구분하여 감정표현불능증의 기제를 탐색하고자 하였다. 또한 세대가 지닌 코호트의 효과와 연령의 효과(생애주기별로 사회적·생물학적으로 성숙해지며 갖게 되는 특성)가 상호작용할 가능성이 존재하기 때문에 연령을 공변인으로 투입하여 모형을 분석하였다.

감정표현불능증과 정서표현양가성 및 정서억제

감정표현불능증을 유발할 수 있는 변인에는 대표적으로 정서억제와 더불어 정서표현양가성이 있다. 정서표현양가성(Ambivalence over emotional expression)은 정서표현을 하고 싶은 욕구를 느끼면서 동시에 표현을 하면 안 될 것 같은 양가적인 감정을 느끼는 것을 칭한다(King & Emmons, 1990). 정서표현양가성은 크게 2개의 하위변인으로 나뉜다. 하나는 정서표현의 결과에 대한 자기보호적인 두려움과 표현의 어려움을 반영하는 자기방어적 양가성과 타인과의 관계를 고려하거나 체면 유지를 위해 자신의 행동을 통제하는 것을 반영하는 관계관여적 양가성이다. 관계에서 오는 위협에 대한 우려나 타인에 대한 배려로 인해 정서표현을 망설이는 것이기에 관계를 중시하는 상호협조적 자기관이 높은 사람들이 정서표현양가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Chiang, 2015).

하지만 정서를 표현하는 것은 타인으로부터 공감과 지지를 얻고 부정적인 정서가 완화되는 긍정적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는데(Nils & Rimé, 2012), 그러한 동기를 강하게 느낌에도 불구하고 표현한 뒤의 결과에 대한 우려로 감정을 드러내지 못하거나 감정을 공유하는 행위에서 불편함을 느끼는 사람들은 상대적으로 관계에서 얻을 수 있는 만족감이 적을 수 있다(예, 부부관계: King, 1993). 또한 양가성을 느끼는 사람들은 우울증이나 신체적 고통을 겪을 가능성도 높아지는(Lu et al., 2011) 등 인간의 심리적 웰빙이나 신체적 증상(질병)과 부적인 상관관계가 있어 심리적 부적응적 기제와 관련된 주요 변인으로 주목받고 있다(King & Emmons, 1990).

정서표현양가성을 느끼는 사람들은 정서를 표현한 뒤의 결과에 대한 우려(예, 관계 위협, 체면유지, 자기방어 등)로 정서표현과 억제 사이에서 갈등을 겪고, 결국 두려움에 정서를 억제할 것이라 추론할 수 있다. 연구들에서도 정서표현양가성이 높은 사람들은 정서억제를 사용하는 경향이 높았음을 보고하였다(예, 권소영 외, 2019; 조한익, 이미화, 2012). 겉으로 드러나는 정서표현을 억제하는 것은 내적인 정서를 단기적으로 감소시켜주는 하지만,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정서를 조절하고 심리적 각성을 완화하는 측면에서 덜 효과적이라 보고된다(Gross, 1998; Gross & Thompson, 2007).

Laloyaux 등(2015)은 감정표현불능증에서 나타나는 정서 능력의 결함이 정서억제 사용과 관련이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설문 연구를 진행하였다. 정서조절 질문지(Emotion Regulation Questionnaire; Gross & John, 2003)와 토론토 감정표현불능증척도(Toronto Alexithymia Scale-20; Bagby et al., 1994)를 사용하여 참가자들의 정서조절방략(정서억제와 인지적 재평가)과 감정표현불능 정도를 평정한 뒤, 두 점수 간의 상관관계를 검증하였다. 상관 분석 결과, 감정표현불능증 점수와 정서억제 점수 간에 높은 정적 상관관계가 나타났으며, 인지적 재평가와는 상관관계가 유의하지 않았다.

감정표현불능증은 정서표현양가성과도 높은 상관관계를 보인다(예, Müller et al., 2008). 두 개념은 정서를 표현하지 않는 상태를 설명한다는 점에서 유사하지만, 심리적 병리를 서로 다르게 예측하기도 한다(예, Quinton & Wagner, 2005). 감정표현불능증은 정서를 잘 인식하지 못하고 말로 표현하는 것도 어려워하는 증상을 말하며, 정서표현양가성은 정서를 느낄 수는 있으나 느낀 정서를 표현할지 망설이는 수

준을 측정한다는 측면에서 개념적인 차이가 있다. Helmes 등(2008)은 감정표현불능증이 사회적 바람직성(social desirability)에 대한 과도한 고려와 이에 따른 미성숙한 자기 방어기제(immature self defensive system)의 결과로써 나타날 수 있는 증상으로 설명하면서, 과도한 정서 억압(emotion inhibition)은 감정표현불능증의 유력한 예측변인으로 작용함을 보였다.

선행 연구 결과들을 종합해 볼 때, 감정표현불능증이 형성되는 과정에 정서 표현을 망설이는 정도와 정서를 억제하는 방식으로 감정을 조절하는 습관이 영향을 줄 가능성을 크며, 그 과정에 문화적 자기관으로 대표되는 사회문화적 가치관이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으로 추론할 수 있다. 앞서 설명하였지만, 정서표현양가성은 대인관계 상황에서 정서표현에 대한 두려움을 나타내며, 정서표현과 정서억제 간의 갈등을 보여주는 지표이며(King & Emmons, 1990), 정서억제는 부정적인 정서 표현을 회피하고 억누르는 부적응적인 정서조절 전략이다(Gross, 1998). 그리고 정서표현양가성과 정서억제 모두 문화적 자기관의 수준 혹은 유형에 따라 그 정도가 달라짐을 확인하였다(Cheung & Park, 2010; Chiang, 2015). 따라서 권소영 등(2019)이 제안한 모형과 같이 문화적 자기관에 따라 정서표현양가성과 정서억제를 매개하여 감정표현불능증의 수준이 달라지는 모형을 상정할 수 있다. 이 때, 한국은 사회문화가 빠르게 변모하였고 세대에 따라 형성된 가치관 및 삶의 태도가 다르기 때문에 이러한 코호트적 배경에 따라 변인들의 영향이 달라질 가능성이 있다. Cheung과 Park(2010)의 연구에서는 인종을 조절변인으로 넣었다면, 본 연구에서는 연구참가자의 출생연도 1970년을 기준으로 세대를 구분하여(1970년 이전 출생일

경우 '산업화'세대, 1971년 이후 출생일 경우 '정보화'세대), 세대를 조절변인으로 상정하였다. 그리고 20대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권소영 등(2019)의 연구와 달리, 상호협조적, 상호독립적 두 가지 문화적 자기관을 독립적인 예측 변인으로 상정하기보다 세대나 개인에 따라 다를 수 있는 상대적 개념으로 상정하여, 문화적 자기관의 상대적 점수를 계산하여 예측 변인으로 설정하였다(즉, 상대적 독립성, 아래 방법론 참조). 최종적으로, 본 연구는 문화적 자기관의 상대적인 차이(상대적 독립성)가 정서표현양가성과 정서억제가 연속매개 과정을 거쳐 감정표현불능증에 미치는 영향력이 세대에 따라 어떻게 조절되는지 탐색하며, 그 과정을 모형화 하고자 한다.

방 법

연구 대상

총 1,000명의 한국인을 대상으로 한 자료이며(자료수집기간: 2021년 1월 ~ 2021년 5월), 설문조사업체(인바이트)를 통해 모집하였다. 온라인 설문조사에 참여한 참가자들은 소액의 금전적 보상을 지급받았다. 만 19세부터 69세의 전국 성인을 대상으로 남녀 비율을 동일하게 하여 총 1,000명을 무선 표집하였다. 표 1은 참가자들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이다.

측정 도구

문화적 자기관

문화적 자기관은 Singelis(1994)가 개발한 자기관 척도(Self-construal Scale; SCS)를 안신능

표 1. 참가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N=1000)

세대	성별	빈도(명)	평균나이 (SD)
정보화 세대	여성	317	34.43 (8.94)
	남성	324	34.98 (9.05)
	총	641	34.71 (8.99)
산업화 세대	여성	183	58.63 (4.98)
	남성	176	59.15 (5.47)
	총	359	58.89 (5.22)

(2006)이 번안한 문항으로 측정하였다. 자기관 척도는 자신을 자율적인 존재이자 타인과 구분되는 독립적인 객체로 지각하는 정도를 측정하는 상호독립적 자기관 문항(12문항)과 스스로를 타인이나 주변 환경과 연결된 존재로 인식하고 인간관계를 중요하게 여기는 정도를 측정하는 상호협조적 자기관 문항(12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원 척도의 문항간 신뢰도(Cronbach's alpha)는 상호독립적 자기관 문항이 .70, 상호협조적 자기관 문항이 .74였다(Singelis, 1994). 본 연구에서는 문항간 신뢰도가 상호독립적 자기관이 .76, 상호협조적 자기관이 .75였다.

정서표현양가성

정서표현양가성은 King과 Emmons(1990)가 개발한 정서표현양가성 질문지(Ambivalence over Emotional Expressiveness Questionnaire: AEQ)를 한국어로 번안하고 타당화한 최해연과 민경환

(2007)의 한국판 정서표현양가성 척도(AEQ-K)를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원척도는 28문항이었지만, 한국 문화를 고려하여 재구성한 AEQ-K는 21문항을 포함하고 있다. 척도의 문항은 자기방어적 양가성(13문항)과 관계관여적 양가성(8문항)으로 구성된다. 참가자들은 각 문항을 읽고, 평소 자신의 상태를 잘 나타낸다고 생각되는 정도를 5점 리커트 척도(1점 = 전혀 이렇게 느끼지 않는다. ~ 5점 = 자주 이렇게 느낀다.)로 평정하였다.

원 척도의 문항간 신뢰도는 .89이었으며(King & Emmons, 1990), 본 연구의 문항간 신뢰도는 .92이었다. 자기방어적 양가성 문항의 신뢰도는 .90, 관계관여적 양가성 문항의 신뢰도는 .82이었다.

정서억제

정서억제는 총 4문항으로, Gross와 John(2003)이 개발한 정서조절 질문지(Emotion Regulation Questionnaire: ERQ)에서 추출하였으며, 손재민(2005)이 번안한 것을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참가자들은 각 문항을 읽고(예, 나는 감정을 남에게 드러내지 않는다.), 자신과 일치하는 정도를 7점 리커트 척도로 평정하였다(1점 =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 ~ 4점 = 보통이다 ~ 7점 = 전적으로 동의한다.). 원 척도의 문항간 신뢰도는 .73이었으며(Gross & John, 2003), 본 연구의 문항간 신뢰도는 .79였다.

감정표현불능증

감정표현불능증은 한국판 감정표현불능증 척도(20-item Toronto Alexithymia Scale. TAS-20K)를 사용하여 측정하였으며, 총 20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한국판 TAS-20K는 해외에서

Bagby 등(1994)이 개발한 척도를 국내에서 이양현 등(1996)이 번안하고, 정운성 등(2003)이 타당화한 척도이다. 척도는 감정인식의 어려움(difficulty identifying feelings; DIF), 감성기술의 어려움(difficulty describing feelings; DDF), 그리고 외부지향적 사고(externally oriented thinking; EOT)라는 3가지 요인으로 구성되어 있다. DIF는 총 7문항으로, 자신의 감정이나 신체의 감각 변화를 잘 인식하지 못하는 정도를 측정한다(예, 몹시 속이 상했을 때 자신이 슬픈 건지 놀란 건지 화난 건지를 잘 모를 때가 있다). DDF는 총 5문항으로, 자신의 감정을 말로 표현하는 것의 어려움 정도를 측정한다(예, 다른 사람에게 대한 나의 감정을 설명해 내기가 어렵다). EOT는 총 8문항으로, 내적인 감정탐색을 하지 않고 외부 사건에만 관심을 두는 사고방식의 정도를 측정한다(예, 영화나 연극의 숨겨진 의미를 생각하면 재미가 없어진다). 참가자들은 각 문항을 읽고 자신의 상태를 잘 나타내는 정도를 5점 척도로 평정하였다(1점 = 전혀 그렇지 않다 ~ 5점 = 매우 그렇다).

정운선 등(2004)에서 보고한 TAS-20K 전체 문항에 대한 신뢰도는 0.81이었고, DIF, DDF, EOT에 대한 문항간 신뢰도는 .85, .77, .59였다. 본 연구에서는 순서대로 .87, .88, .77, .41이었다.

자료 분석

$$\text{상대적 독립성} = \frac{\text{상호독립적자기관} - \text{상호협조적자기관}}{\text{상호독립적자기관} + \text{상호협조적자기관}} \quad (1)$$

본 연구에서는 각 척도에서 산출한 총점을 사용하여 SPSS 26.0과 PROCESS macro 4.1(Hayes, 2022)로 분석하였다. 독립변인은 ‘문화적 자기

관의 상대적 독립성(이하 상대적 독립성)’으로 상호독립적 자기관 점수에서 상호협조적 자기관 점수를 뺀 차이값을 상호독립적 자기관 점수와 상호협조적 자기관 점수를 더한 값으로 나누는 비율 값이었다(식 1). 상대적 독립성이 높은 값일수록 상호협조적 자기관에 비하여 상호독립적 자기관 점수가 더 높음을 의미한다. 동일한 문화적 자기관 척도를 사용한 Jobson 등(2019)은 상호독립적 자기관의 상대적 비율을 계산하기 위해 상호독립적 자기관 점수를 상호협조적 자기관 점수로 나누는 값을 사용하였다. 하지만 한국인 자료들의 경우 상호협조적 자기관과 상호독립적 자기관의 상관관계가 관찰되어 왔기 때문에(권소영 외, 2019; 어유경, 박수현, 2018; 어유경 외, 2019), 동일한 방법을 사용할 시에 두 값의 상관관계로 인해 상대적 강도가 과대추정(overestimation)되는 경향을 나타내게 된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상대적 강도 측정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 두 변인의 차이값을 두 값의 합으로 나누는 방법을 사용하였다. 이는 통계학 분야에서 다중공선성 문제를 다루기 위해 개발된 능형회귀(ridge regression) 모형에서 회귀계수를 0의 방향으로 축소시키는 것과 동일한 작용을 하게 된다(Hoerl & Kennard, 1970).

상관관계는 계산한 상대적 독립성과 연구변인들의 기술통계(총합)로 분석하였다. 한국인의 문화적 자기관이 감정표현불능증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심리과정을 이해하기 위해 먼저 연속매개과정(그림 1: Hayes의 PROCESS 모형6에 해당)에서 발생하는 연속매개효과(serial mediation effect)를 검증하였다. 이후 연속매개과정의 이론적 고도화를 위해 조절변수(세대)와 연속매개모형의 모든 경로가 동시에 결합되도록 설계된 PROCESS 모형 92를 사용하여,

모든 상호작용항들의 동시비교를 통해 통계적으로 유의한 상호작용 패턴을 탐색하였다. 이 분석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경로와 상호작용항으로 구성된 최종모형(model 87)을 도출하였으며, 경로계수 및 매개, 조절 효과는 최종모형을 바탕으로 산출하였다. 이 과정에서 세대 효과에 대한 연령의 혼입 효과를 통계적으로 제거하기 위해 연령을 공변인으로 투입하였으며, 성별 또한 감정표현불능증 및 정서 조절 방식에 영향을 주는 요인이므로(Levant et al., 2009; Levenson et al., 1994; Moriguchi et al., 2007; Tamres et al., 2002), 공변인으로 투입하여 그 효과를 통계적으로 통제하였다. 연속변인의 경우 해석의 용이성을 위해 평균중심화를 실시하였다. 조절효과 해석을 위해 상호작용그래프를 검토한 후 단순 기울기 분석(simple slope analysis)을 통해 조건부 효과의 통계적 유의성을 검증하였다.

결 과

측정 변인의 기술통계 및 상관

표 2에 측정 변인들의 기술통계치와 일원변량분석 및 반복측정변량분석 결과를 제시하였다. 간략하게 주요 결과만 살펴보자면, 우선 문화적 자기관(상호독립적 자기관/상호협조적 자기관)과 세대(산업화 세대/정보화 세대)간의 상호작용 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반복측정 변량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문화적 자기관과 세대 간의 상호작용 경향성이 관찰되었다, $F(1, 998)=3.20, p=.074$. 세대 별로 각 문화적 자기관 값의 차이를 비교해본 결과, 산업화 세대(상호독립적 자기관: $M=55.25, SD=7.73$;

상호협조적 자기관: $M=56.64, SD=7.32$)가 정보화 세대(순서대로 $M=52.82, SD=8.83$; $M=53.20, SD=7.79$)에 비하여 두 자기관 점수 모두 높았다. 상호독립적 자기관이 우세하다고 알려진 문화권에서도 연령이 높은 집단은 젊은 집단에 비하여 상호협조적 자기관 점수가 높게 나타났는데(예, Guo et al., 2008; Yeung et al., 2008), 본 연구에서 나타난 세대의 차이가 연령의 효과인지 혹은 세대가 갖고 있는 코호트 특성에 따른 결과인지 구분할 필요가 있다. 상호독립적 자기관 점수 또한 산업화 세대에서 더 높은 값을 보였기에, 한국의 문화적 배경을 고려하여 집단주의가 우세했던 한국인들이 세대에 따라 상대적으로 상호독립적 자기관의 정도가 달라지는지 살펴볼 수 있는 상대적 독립성을 독립변인으로 삼는 것이 적절하다 할 수 있다.

다음으로 감정표현불능증의 경우 집단 간 차이가 유의하였고, $F(1, 998)=18.17, p<.001$, 하위요인인 감정인식의 어려움과 감정기술의 어려움, 그리고 외부지향적 사고에서도 각각 유의한 결과가 나타났다, $F(1, 998)=11.95, p<.001$; $F(1, 998)=20.54, p<.001$; $F(1, 998)=6.46, p<.001$. 정보화 세대가 감정표현불능증 총점($M=54.04, SD=10.88$)과 하위요인들의 점수들(감정인식의 어려움: $M=18.21, SD=5.96$; 감정기술의 어려움: $M=14.39, SD=3.97$; 외부지향적 사고: $M=21.44, SD=3.32$)에서 산업화 세대(순서대로 $M=51.01, SD=10.40$; $M=16.86, SD=5.77$; $M=13.24, SD=3.66$; $M=20.91, SD=2.95$)보다 높은 값을 보였다. 선행연구들은 집단주의 문화에서 정서억제를 문화적응적인 기제로 여기기에 감정표현불능 수준이 더 높게 관찰되는 것이라 주장하였는데(Dion, 1996; Dere et al., 2012), 본 연구에서 나타난 세대 간의 차이

표 2. 연구 변인의 기술통계(N=1000)

측정 개념	하위 요인	문항 수	전체 (N=1000)	정보화 세대 (N=641)	산업화 세대 (N=359)	F(p-value)
			M(SD)	M(SD)	M(SD)	
문화적 자기관	상호독립적 자기관	12	53.69(8.52)	52.82(8.83)	55.25(7.73)	3.20* (.074)
	상호협조적 자기관	12	54.42(7.81)	53.20(7.79)	56.64(7.32)	
	상대적 독립성		-0.008(0.09)	-0.005(0.09)	-0.013(0.08)	
정서표현양가성	정서표현양가성(총점)	21	67.89(12.34)	68.17(12.83)	67.39(11.41)	.94(.333)
	자기방어적 양가성	13	37.31(7.86)	37.62(8.12)	36.74(7.37)	2.93(.087)
	관계관여적 양가성	8	30.59(5.43)	30.55(5.65)	30.65(5.03)	.08(.784)
정서억제	정서억제	4	16.57(4.37)	16.46(4.53)	16.75(4.06)	.96(.328)
감정표현불능증	감정표현불능증(총점)	20	52.95(10.88)	54.04(10.88)	51.01(10.40)	18.17***(.000)
	감정인식의 어려움	7	17.72(5.92)	18.21(5.96)	16.86(5.77)	11.95***(.001)
	감정기술의 어려움	5	13.98(3.9)	14.39(3.97)	13.24(3.66)	20.54***(.000)
	외부지향적 사고	8	21.25(3.2)	21.44(3.32)	20.91(2.95)	6.46*(.011)

주. ** $p < .001$, * $p < .05$

표 3. 변인들 간의 상관관계

		정보화 세대(N=641)										
		1.	1.1	1.2	2.	2.1	2.2	3.	4.	4.1	4.2	4.3
1. 상대적 독립성	1											
1.1 상호협조적 자기관		-.44**	1									
1.2 상호독립적 자기관		.63**	.41**	1								
2. 정서표현양가성		-.34**	.28**	-.12**	1							
2.1 자기방어적 양가성		-.32**	.21**	-.15**	.95**	1						
2.2 관계관여적 양가성		-.32**	.32**	-.06	.90**	.73**	1					
3. 정서억제		-.18**	.20**	-.03	.48**	.46**	.42**	1				
4. 감정표현불능증		-.21**	-.02	-.24**	.56**	.64**	.35**	.41**	1			
4.1 감정인식의 어려움		-.16**	.04	-.13**	.54**	.61**	.36**	.33**	.91**	1		
4.2 감정기술의 어려움		-.26**	-.01	-.25**	.62**	.67**	.44**	.48**	.88**	.74**	1	
4.3 외부지향적 사고		-.10*	-.18**	-.26**	.14**	.22**	-.00	.20**	.62**	.35**	.38**	1
		산업화 세대(N=359)										
1. 상대적 독립성	1											
1.1 상호협조적 자기관		-.50**	1									
1.2 상호독립적 자기관		.56**	.42**	1								
2. 정서표현양가성		-.39**	.29**	-.14**	1							
2.1 자기방어적 양가성		-.37**	.22**	-.17**	.95**	1						
2.2 관계관여적 양가성		-.35**	.32**	-.06	.88**	.68**	1					
3. 정서억제		-.10†	.10†	-.03	.37**	.29**	.41**	1				
4. 감정표현불능증		-.18**	-.07	-.25**	.49**	.57**	.28**	.22**	1			
4.1 감정인식의 어려움		-.16**	.01	-.16**	.48**	.54**	.31**	.15**	.93**	1		
4.2 감정기술의 어려움		-.22**	-.03	-.26**	.53**	.59**	.34**	.30**	.88**	.76**	1	
4.3 외부지향적 사고		-.03	-.22**	-.25**	.12*	.21**	-.03	.10	.62**	.37**	.38**	1

주. ** $p < .001$, * $p < .05$

가 세대에 따라 우세한 문화적 자기관이 달라서 나타난 것인지, 혹은 감정표현불능 수준을 예측하는 경로에서 세대의 특성이 효과를 조절하여 나타난 것인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상관분석 결과는 표 3에 제시하였다. 주요 결과만 요약해서 세대별로 살펴보자면, 정보화 세대에서는 상대적 독립성이 높을수록 정서표현양가성 점수와 정서억제 점수가 낮아지는 부적 상관을 보였다, $r = -.34, p < .001$; $r = -.18, p < .001$. 또한 상대적 독립성이 높을수록 감정표현불능증 점수가 낮아지는 부적 상관이 유의하였다, $r = -.21, p < .001$. 이 결과는 상호협조적 자기관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상호 독립적 자기관이 높은 참가자들이 정서표현양가성, 정서억제, 그리고 감정표현불능증 수준이 낮음을 의미한다. 그리고 정서표현양가성과 정서억제 및 감정표현불능증간의 정적 상관이 유의하였으며, $r = .48, p < .001$; $r = .56, p < .001$, 정서억제와 감정표현불능증 간에서도 정적인 관계가 나타났다, $r = .41, p < .001$. 정서표현에 대한 양가성을 많이 느낀다고 보고한 참가자들일수록 정서억제를 더 많이 사용한다고 평정하였고, 정서억제 점수가 높을수록 감정표현불능증 점수도 상승하였다.

산업화 세대의 경우에도 동일하게 상대적 독립성과 정서표현양가성 및 감정표현불능증 간의 관계에서 부적 상관이 유의하였다,

$r = -.39, p < .001$; $r = -.18, p = .001$. 그리고 상대적 독립성과 정서억제 간의 부적 관계에는 경향성이 있었다, $r = -.10, p = .053$. 마지막으로 정서표현양가성과 정서억제 및 감정표현불능증 간의 정적 상관과, $r = .37, p < .001$; $r = .49, p < .001$, 정서억제와 감정표현불능증 사이의 정적 상관도 유의하였다, $r = .22, p < .001$.

모형 분석 결과

상대적 독립성과 감정표현불능증의 관계에서 정서표현양가성과 정서억제의 연속매개효과

정서표현양가성과 정서억제가 상대적 독립성과 감정표현불능증의 관계를 매개하는 모형은 크게 상대적 독립성이 정서표현양가성에 영향을 주는 직접효과, 상대적 독립성이 정서표현양가성을 거쳐 정서억제에 영향을 주는 단순매개효과(model 4), 그리고 정서표현양가성을 통한 정서억제의 연속매개효과(model 6)로 구성된다. 분석에 대한 결과는 그림 1과 같다. 먼저, 상대적 독립성이 높을수록 정서표현양가성 수준이 낮아지는 직접경로가 유의하였다, $b = -51.45, p < .001$. 또한 정서표현양가성 점수가 클수록 정서억제 정도도 높아졌으며, $b = .16, p < .001$, 정서억제 점수가 높아질수록 감정표현불능 수준도 상승하였다, $b = .32, p < .001$. 9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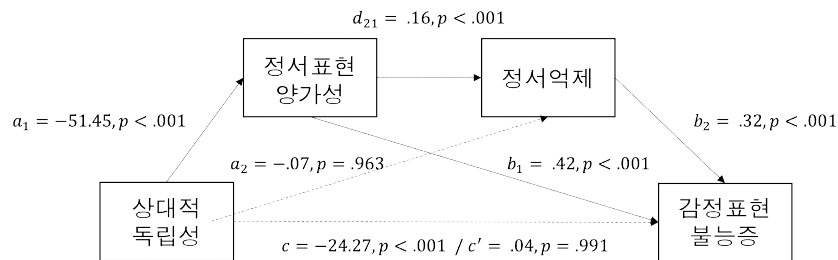


그림 1. 정서표현양가성과 정서억제의 연속매개효과

신뢰도 구간에서 무작위로 5,000개의 표본재추출을 통한 부트스트래핑(bootstrapping)을 사용하여 모형의 통계적 유의성을 검증한 결과, 상대적 독립성이 정서표현양가성을 거쳐 정서억제에 영향을 주는 단순매개경로가 유의하였다, 95%CI[-9.99, -6.29].

마지막으로 연속매개모형을 분석하였을 때, 상대적 독립성이 정서표현양가성을 통해 정서억제를 매개하여 감정표현불능증에 영향을 주는 연속매개경로가 부트스트랩 신뢰구간[-4.08, -1.24]에 0을 포함하지 않아 유의하였다. 하지만 감정표현불능증에 영향을 미치는 상대적 독립성의 직접 효과는 부트스트랩 신뢰구간[-7.07, 7.15]에 0을 포함해 유의하지 않았다, $b=.04, p=.991$. 즉, 상대적 독립성이 감정표현불능증에 미치는 영향이 정서표현양가성과 정서억제의 매개로 나타난다.

정서표현양가성과 정서억제가 상대적 독립성과 감정표현불능증 간의 관계를 연속매개할 때 세대의 조절효과

연속매개모형에서 세대 변인이 상호작용하는 경로를 탐색하기 위해 가능한 모든 조절효과를 탐색할 수 있는 통합모형(model 92)을 검증하였다(Muller et al., 2005). 표 4는 상호작용 경로들의 분석 결과를 나타낸다. 세대와 상대적 독립성이나 정서표현양가성과의 상호작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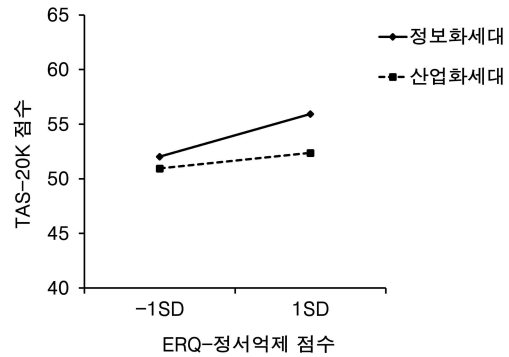


그림 2. 세대에 의해 조절된 정서억제의 감정표현불능증에 대한 영향

효과는 유의하지 않았고(순서대로: $b=2.01, p=.617$; $b=.02, p=.504$), 세대와 정서억제의 상호작용항만 유의하였다, $b=-.17, p=.029$. 정서억제가 감정표현불능 수준에 미치는 효과가 세대에 따라 조절됨을 뜻한다. 조절 양상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기 위한 단순기울기 검증결과를 그림 2에 제시하였다. 산업화 세대(1)는 기울기가 유의하지 않았는데, $b=.11, p=.390$, 정보화 세대(-1)의 경우 기울기가 유의하였다, $b=.45, p<.001$. 산업화 세대의 경우 정서억제 점수의 증가가 감정표현불능 수준에 미치는 영향이 유의하지 않은 반면에, 정보화 세대는 정서억제 점수가 높아질수록 감정표현불능 수준도 상승함을 의미한다.

표 4. 상호작용효과 분석 결과(N=1000)

변인	<i>b</i>	<i>se</i>	<i>t</i>	<i>p</i>	LLCI	ULCI
중속변인 : 감정표현불능증						
세대×상대적 독립성	2.01	4.02	.50	.617	-5.88	9.91
세대×정서표현양가성	.02	.03	.67	.504	-.04	.07
세대×정서억제	-.17	.08	-2.19	.029	-.32	-.02

조절된 연속매개모형

탐색을 통해 상대적 독립성이 정서표현양가 성과 정서억제를 통해 감정표현불능증에 영향을 줄 때, 정서억제가 감정표현불능 수준에 미치는 효과가 세대에 따라 조절되는 조절된 연속매개모형(model 87)을 최종 모형으로 도출하였다. 앞서 설명한 대로 참가자의 연령과 성별은 공변인으로 투입하여 그 효과를 통계

적으로 통제하였다. 표 5는 검증한 결과를 나타낸다. 90% 신뢰도 구간에서 10,000개의 무작위 표본재추출을 통한 부트스트래핑 결과, 조절된 매개지수(index of moderated mediation)의 부트스트랩 신뢰구간[.20, 4.40]에 0이 포함되지 않아 세대에 의한 조절된 매개효과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화 세대(1)의 경우에 부트스트랩 신뢰구간[-2.98, .61]에 0을 포함하

표 5. 조절된 이중매개효과 결과 및 세대에 따른 조건부 간접효과 결과(N=1000)

변인	<i>b</i>	<i>se</i>	<i>t</i>	<i>p</i>	LLCI	ULCI
종속변인: 정서표현양가성						
상수	67.49	.37	184.15	.000	66.88	68.10
상대적 독립성	-51.45	4.28	-12.01	.000	-58.50	-44.40
종속변인: 정서억제						
상수	-10.62	.74	-14.43	.000	-11.84	-9.41
상대적 독립성	-.07	1.56	-.05	.963	-2.64	2.49
정서표현양가성	.16	.01	14.55	.000	.14	.17
종속변인: 감정표현불능증						
상수	31.91	2.64	12.08	.000	27.56	36.26
상대적 독립성	-1.90	3.57	-.53	.595	-7.78	3.98
정서표현양가성	.41	.03	15.03	.000	.37	.46
정서억제	.28	.08	3.62	.000	.15	.41
세대	.27	.53	.50	.614	-.60	1.13
세대×정서억제	-.14	.07	-1.98	.048	-.26	-.02
연령	-.14	.04	-3.78	.000	-.20	-.08
성별	-.55	.58	-.95	.340	-1.50	.40
세대	간접효과		BootSE	BootLLCI	BootULCI	
-1(정보화 세대)	-3.37		.87	-4.90	-2.03	
1(산업화 세대)	-1.12		1.09	-2.98	.61	
조절된 매개 지수						
변인	Index	BootSE	BootLLCI	BootULCI		
세대	2.25	1.27	.20	4.40		

고 있어 조건부 간접효과가 유의하지 않았다. 반면에 정보화세대(-1)는 부트스트랩 신뢰구간 [-4.90, -2.03]에 0을 포함하고 있지 않아 조건부 간접효과가 유의하였다. 연구결과는 상대적 독립성이 정서표현양가성과 정서억제를 통해 감정표현불능증에 미치는 간접효과 크기가 세대에 따라 달라지며, 특히 정보화 세대에서 그 크기가 더 커지며 산업화 세대의 경우 정서억제와 감정표현불능증 간의 정적 관계가 유의하지 않음을 함의한다.

논 의

감정표현불능증은 정서를 표현하지 못하는 증상을 포함하고 있는 만큼, 집단의 질서를 위해 개인의 정서억제를 권장하는 집단주의 문화에서 더 높은 점수가 나타난다고 알려져 왔다(Chan et al., 2023; Lo, 2014) Triandis(1988)는 개인주의 문화가 자기주장을 통해 개인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신장시키는 분위기라면, 집단주의 문화는 개인의 욕구를 억제하고 표현을 조절함으로써 집단의 조화와 성취를 우선시 한다고 주장하였는데, 23개 국가의 국민들을 대상으로 정서조절방식(인지적 재평가와 정서억제)을 비교한 결과, 사회질서를 가치 있게 여길수록 인지적 재평가보다 정서억제 수준이 높았다(Matsumoto, Yoo, & Nakagawa, 2008). 그렇기에 집단주의적 가치관을 중시하는 문화에서 감정표현불능증 점수가 더 높게 나타났다고 해석할 수 있다.

한국도 중국, 일본과 함께 집단주의 문화권의 국가로 분류되어 왔지만, 빠른 경제 성장과 개인주의 문화권 국가와의 잦은 교류로 인해 한국의 가치관과 의사소통 방식이 개인주

의 문화와 유사하게 변화하고 있다는 보고가 이어지고 있다(나은영, 차재호, 1999; Lee, 1999; Oyserman et al., 2002; Shim et al., 2008). 문화적 자기관을 제안한 Singelis(1994)는 문화 내에 개인주의적 가치관과 집단주의적 가치관이 혼재되어 있으며, 구성원들은 상호협조적 자기관과 상호독립적 자기관을 모두 가질 수 있다고 설명하였다(Triandis et al., 1985 참고). 한국의 시대 변화를 미루어 봤을 때에도, 한국은 특히 개인주의 혹은 집단주의 문화라는 어느 양극단의 가치관으로 설명되기 보다는 오랜 세월 집단주의적 가치관을 공유했지만, 개인이 성장한 역사적, 문화적 배경에 따라 개인주의적 성향이 상대적으로 더 우세해진 사람들이 섞여 살아가는 국가라고 제안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한국인의 상대적 독립성이 정서표현양가성과 정서억제를 연속매개하여 감정표현불능증을 예측할 때, 세대에 따른 조절효과가 나타나는지 살펴봄으로써 한국인을 특정 문화적 집단으로 간주하지 않고, 문화적 가치관이 다를 수 있는 세대의 특성을 반영하여 한국인의 감정표현불능증 기제를 탐색하고자 하였다.

최종 모형인 조절된 연속매개모형 분석 결과, 상대적 독립성이 정서표현양가성과 정서억제를 연속매개하여 감정표현불능증을 예측하는 연속매개모형이 유의하였다. 상대적 독립성이 낮을수록 정서표현양가성과 정서억제 점수가 높아졌고, 그에 따라 감정표현불능 수준도 높아졌다. 이 때 감정표현불능증에 미치는 정서억제의 영향이 세대에 따라 조절되었다. 1970년 이후 출생인 정보화 세대는 정서억제를 많이 할수록 감정표현불능 수준이 높아졌지만, 1970년 이전 출생인 산업화 세대는 정서억제 점수가 높아져도 감정표현불능 수준

이 높아지지 않는 상호작용 효과가 관찰되었다. 연속매개모형에서 관찰된 결과는 권소영 등(2019)의 결과에서 확인한 결과와 유사한 것으로 상대적으로 자신이 주변과 덜 독립적이며 관계가 있다고 느낄수록 정서표현에 두려움을 느끼고 그에 따라 정서를 억제하며, 감정표현불능 수준이 높아지는 효과가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 하지만 이 연속매개효과에서 정서억제와 세대 간의 상호작용이 유의하였는데, 정보화 세대와 달리 산업화 세대는 정서억제 점수가 높아져도 감정표현불능 수준이 높아지지 않았다. 이 결과는 세대의 코호트적 특성에 따라 정서억제가 갖고 있는 역기능적 효과가 나타나지 않을 수 있음을 함의한다.

정보화 세대는 집단주의적 가치관을 지닌 부모가 양육하였지만, 개인주의 국가와의 교류가 중요해지면서 시대가 그들에게 요구한 가치관은 개인주의적 가치관이라 할 수 있다. 반면에 산업화 세대는 집단주의적 가치관이 더 우세한 시기에 성장했고, 그 가치관을 유지한 채로 시대 변화에 맞춰 개인주의적 가치관을 포용한 세대라고 해석할 수 있다. 개인이 성장하고 나아가고 있는 문화적 가치관은 어떻게 정서를 표현하고 조절하는 것이 적절한 방식이자 좋은 사람인가에 대한 인식에도 영향을 주게 된다. Glazer(2020)는 정서표현양가성을 느끼거나 정서를 억제하는 것이 적응적이나 부적응적이나는 정서표현규칙을 형성하는 문화나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주장한다. 개인의 욕구가 중요시 되는 상황에서는 정서를 억제하는 것이 부정적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이 높지만, 사회적 유대나 공공의 이익을 추구하는 경우에는 정서억제가 무조건 부정적 결과를 초래하는 않는다는 것이다.

Grandey 등(2005)은 직장에서 허용되는 정서

조절 자율성의 정도와 국가의 정서적 문화 유형에 따라 직원의 직무만족도와 정서적 소진을 비교하였다. 연구 결과, 손님을 응대할 때 정서조절 자율성이 높게 허용된 직원은 정서를 많이 억제하게 되더라도 직무 만족도가 높고 정서적 소진이 덜했다. 또한 프랑스의 직장 내 정서적 문화가 충동지향적(impulsively oriented)이고 조절되지 않은 정서를 표현하는 것에 가치를 둔다면, 미국의 직장문화는 제도지향적(institutionally oriented)으로 제도적 역할과 기준에 충족하는 정서조절방략을 사용하는 것이 강력한 규범으로써 작동한다(Gordon, 1989). 두 집단을 비교해보니 프랑스인들은 정서억제 빈도가 높아져도 직무 만족도가 하락하지 않는 반면, 미국인은 정서억제를 많이 할 때 직무 만족도가 감소하는 상호작용 효과를 보였다. 연구자들은 프랑스인들이 정서억제를 제도적 규범을 따르기 위함이 아닌 자신의 대인관계 혹은 기술적 목표를 충족시키기 위해 자율적으로 행했기 때문에 직무 만족도가 감소하지 않았다고 해석하였다. 추가적으로, 미국은 개인주의 문화권에 속하기에 개인의 표현을 중시하는데, 직장 내의 규범에 의해 개인의 정서가 억제됨으로써 부정적 결과가 초래된 것이라 추론할 수 있다. 종합적인 연구 결과는 정서억제를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을 경우 정서를 억제하더라도 부정적 결과가 발생하지 않을 수 있다는 가능성을 함의한다.

집단주의 문화권인 한국은 전통적으로 감정표현을 억제하고, 자신의 욕구나 주장을 억누르고 인내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여겨져 왔다(최상진, 정태연, 2001). 김민희, 민경환(2004)은 청년, 중년, 노년 집단 간의 정서조절방략을 비교하였는데, 노년 집단일수록 정서

경험을 내적으로 재해석하여 느끼지 않으려고 하거나, 회피 혹은 분산하는 방식을 사용한다고 보고하였다. 이 결과는 중, 노년집단이 정서억제에 가까운 정서조절방식을 더 많이 사용하는 경향이 있음을 암시한다. 현재 연구에서 정서억제 수준에 대한 집단 간 차이는 유의하지 않았지만, 세대에 따른 문화적 가치관에 따라 정서억제가 가지는 기능적인 측면은 다를 수 있다. 개인주의 문화에서는 정서억제가 감정표현불능증, 우울증, 불안과 같은 심리적 부적응 기제를 야기할 가능성이 높다고 알려져 있지만(Aldoa et al., 2010), 집단주의 문화에서는 정서억제가 정서질환을 야기하지 않고, 주관적 안녕감에 부정적 영향을 주지 않는 결과가 보고되기도 하며 오히려 정서를 잘 억제하는 자신을 좋은 사람이라 지각하기도 한다(이은경 외, 2009; Cheung & Park, 2010; Le & Impett, 2013). 따라서 산업화 세대의 경우 정서를 억제하고 통제하는 상황을 부정적으로 인식하기보다는 사회의 조화를 유지하고 공동의 이익을 추구하는 측면에서 긍정적인 정서조절방략으로 받아들였을 수 있으며, 정서를 잘 억제했을 때 사회에서 인정을 받거나 대인관계가 좋아지는 등 정서억제가 보상으로 작용했을 가능성도 있다. 그렇기에 정서를 억제하더라도 감정표현불능 수준이 높아지지 않는 결과를 보인 것이라 해석할 수 있다. 반면에 정보화 세대는 정서를 억제하는 것이 심리적 불편감을 유발했기에 감정표현불능 수준이 높아지는 상호작용 효과가 나타난 것이라 제안할 수 있다.

본 연구는 한국인의 감정표현불능증 기제를 탐색하고 세대에 따른 정서억제 효과의 차이점을 밝혔다는 함의를 가지며,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제안한다. 첫째, 주변과 자신이 독립

적으로 존재한다고 여기는 정도가 약할수록 타인에게 정서를 표현할 때 불안을 많이 느끼며, 그에 따라 억제를 많이 하게 되고 감정을 잘 표현하지 못하게 되는 연속매개효과가 관찰되었다. 따라서 정서인식과 정서표현을 잘 하기 위해서는 타인과 자신이 분리된 존재임을 인식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음을 제안한다.

또한 모형을 보면 산업화 세대와 달리 정보화 세대는 정서억제를 할수록 감정표현불능증 점수가 높아졌다. 자신이 성장한 코호트적 배경에 따라 정서를 표현하고 조절하는 것에 대한 신념이 다르며, 그에 따른 심리적 효과도 달라진 것이라 이해할 수 있다. 이 결과는 세대 간의 정서표현에 대한 신념의 차이가 세대 갈등을 촉발시킬 수 있음을 제안한다. 박재홍(2010)은 세대 갈등이 일어나는 주제로 성장주의-소비주의, 집단주의-개인주의, 그리고 권위주의-탈권위주의 가치관의 충돌로 요약하였다. 젊은 세대는 개인의 이익과 자유를 추구하고 자아실현을 가장 중요한 목표로 삼는데, 윗세대는 상대적으로 전통적인 권위주의 문화를 내면화했으며 집단의 조화를 해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여기기에 젊은 세대의 관점에서는 윗세대의 언행이 자유를 억압하고 개인의 표현을 억제하는 것으로 느껴질 수 있다고 설명한다. 정서억제는 특히 수직적이고, 개입적이며 착근성(embeddedness)을 가치롭게 여기는 문화에서 주로 사용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Matsumoto, Yoo, & Nakagawa, 2008), 산업화 세대의 경우 정서를 억제하는 것이 역기능적이지 않아 정보화 세대에게도 동일한 기제를 요구하게 될 수 있다. 하지만 정보화 세대는 다른 가치관을 갖고 있기에 정서억제가 역기능적으로 작용할 수 있으며 이가 또 다른

세대 갈등의 원인이 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한국인의 감정표현불능증과 세대에 대한 담론을 제기하였다는 함의가 있지만, 현재 연구는 참가자의 인구통계학적 정보가 부족했다는 한계점이 있다. 연령과 성별 외에 세대 안에는 개인의 학력, 수입 등 다양한 정보가 함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구통계학적 정보가 부족하여 다른 변인들이 혼입되었는지 살펴볼 수 없었다. 둘째, 세대 간의 문화적 가치관의 차이를 보여주는 추가적 지표가 필요하다. 본 연구의 결과 중, 세대 간 상호독립적 자기관과 상호협조적 자기관의 점수, 그리고 상대적 독립성 값의 차이를 비교했을 때 유의한 결과가 나타나지 않았다. 산업화 세대에서 집단주의적 가치관이 더 우세할 것이라 예상하는 이론적 설명들과 다른 결과로, 한국 세대 간의 문화적 가치관의 차이를 충분히 설명하기 위해서는 다른 설명변인들이 더 필요함을 보여준다. 후속 연구에서는 인구통계학적 정보 및 문화적 자기관으로 측정되지 않는 세대의 코호트적 특성을 측정할 수 있는 문항들을 개발하여 잠재변인들을 구체적으로 탐색해볼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는 한국의 세대를 1970년을 기점으로 나누었는데, 시대적 가치관의 변화가 빨라지고 있는 만큼 정보화 세대 내에서도 세대 구분을 세분화해서 살펴볼 필요성이 있다. 소비자 심리 및 마케팅 분야에서는 한국의 세대를 X(1970년~1979년생), M(1980년~1995년생), Z(1996년~2004년생) 등으로 구분하기도 하는데, 이들이 본 연구의 정보화 세대에 해당하게 된다. 남윤주와 남승규(2022)는 특히 M세대와 Z세대 간에 감정조절력의 차이가 있음을 확인하였는데, 이는 정보화 세대 내에서도 세부 하위 세대에 따라 정서적

능력이 다를 수 있음을 함의한다. 따라서 본 연구를 확장한다면, 정보화 세대 내에서도 가치관이나 생활양식의 차이로 인해 나타날 수 있는 정서표현신념 등을 확인해 봐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 권소영, 곽자량, 김비아, 이동훈 (2019). 한국 대학생의 자기관과 감정표현불능증의 관계: 상호독립적 자기관 결핍에 따른 정서 표현양가성 및 정서억제의 매개 효과. 한국심리학회지: 문화 및 사회문제, 25(2), 101-118.
- 김기연, 신수진, 최혜경 (2003). 한국인의 세대별 가치관과 생활행동. 한국가정관리학회지, 21(3), 87-99.
- 김민희, 민경환 (2004). 노년기 정서경험과 정서조절의 특징. 한국심리학회지: 일반, 23(2), 1-21.
- 나은영, 차유리 (2010). 한국인의 가치관 변화 추이: 1979년, 1998년, 및 2010년의 조사 결과 비교.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24(4), 63-92.
- 나은영, 차재호 (1999). 1970년대와 1990년대 간 한국인의 가치관 변화와 세대차 증감.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13(2), 37-60.
- 남윤주, 남승규 (2022). 세대별 소비자행복: MZ 세대를 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지: 소비자·광고, 23(2), 129-152.
- 박재홍 (1995). 세대경험과 신세대의 특성. 한국사회학, 29(가을), 651-683.
- 박재홍 (2009). 세대명칭과 세대갈등 담론에

- 대한 비판적 검토. *경제와사회*, 81, 10-34.
- 박재홍 (2010). 한국사회의 세대갈등: 권력·이념·문화갈등을 중심으로. *한국인구학*, 33(3), 75-99.
- 손재민 (2005). 정서조절 전략 사용에서의 개인차: 인지적 재해석인과 정서표현 억제인의 비교. 서울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 안신능 (2006). 자기 개념에 따른 자기 불일치와 삶의 만족도의 인과적 관계. 연세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 어유경, 박수현 (2018). 정서억제가 친밀한 대인관계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자기구성 개념의 조절효과.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30(1), 121-141.
- 어유경, 최지영, 박수현 (2019). 정서억제가 신체증상에 미치는 영향: 자기구성개념의 조절효과. *한국심리학회지: 건강*, 24(3), 631-646.
- 이양현, 임효덕, 이종영 (1996). 한국판 20항목 Toronto 감정표현불능증 척도 (TAS-20K)의 개발과 타당도. *신경정신의학*, 35, 888-899.
- 이은경, 서은국, Chu, T., Kim, H. S., Sherman, D. K. (2009). 정서억제와 주관적 안녕감: 문화 비교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23(1), 131-146.
- 장수지, 김수영 (2014). 연령집단 별 문화성향과 공동체의식 간 관계.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28(2), 1-27.
- 정운선, 임효덕, 이양현, 김상현 (2003). TAS-20의 한국판 3종간의 신뢰도 및 타당도 비교. *정신신체의학*, 11(1), 77-88.
- 조한익, 이미화 (2012). 정서억제와 정서표현양가성 및 심리적 안녕감 간의 관계 연구. *청소년상담연구*, 20(1), 89-105.
- 최상진, 정태연 (2001). 인고에 대한 한국인의 심리: 긍정적 보상기대와 부정적 과실상계를 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지: 사회문제*, 7(2), 21-38
- 최선, 박정수 (2022). 한국인의 스트레스 인식과 대처 전략: 성별 및 세대별 차이. *한국웰니스학회지*, 17(4), 125-133.
- 최해연, 민경환 (2007). 한국판 정서표현에 대한 양가성 척도의 타당화 및 억제 개념들 간의 비교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21(4), 71-89.
- 황상민, 양진영, 강영주 (2003). 세대집단의 가치로 구분된 라이프스타일 유형과 그에 따른 권위주의 성향의 비교.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17(2), 17-33.
- Aldao, A., Nolen-Hoeksema, S., & Schweizer, S. (2010). Emotion-regulation strategies across psychopathology: A meta-analytic review. *Clinical Psychology Review*, 30(2), 217-237.
- Bagby, R. M., & Taylor, G. J. (1997). Measurement and validation of the alexithymia construct. In G. J. Taylor, R. M. Bagby, & J. D. A. Parker(Eds.), *Disorders of affect regulation: Alexithymia in medical and psychiatric illness* (pp. 46-66). Cambridge University Press.
- Bagby, R. M., Parker, J. D., & Taylor, G. J. (1994). The twenty-item Toronto Alexithymia Scale-I. Item selection and cross-validation of the factor structure. *Journal of Psychosomatic Research*, 38(1), 23-32.
- Butler, E. A., Lee, T. L., & Gross, J. J. (2007). Emotion regulation and culture: Are the social consequences of emotion suppression culture-specific? *Emotion*, 7(1), 30-48.
- Chan, J., Becerra, R., Weinborn, M., & Preece, D. (2023). Assessing alexithymia across Asian and

- Western cultures: Psychometric properties of the perth alexithymia questionnaire and Toronto alexithymia scale-20 in Singaporean and Australian samples. *Journal of Personality Assessment*, 105(3), 396-412.
- Cheung, R. Y., & Park, I. J. (2010). Anger suppression, interdependent self-construal, and depression among Asian American and European American college students. *Cultural Diversity and Ethnic Minority Psychology*, 16(4), 517-525.
- Chiang, W. T. (2015). Individual differences in ambivalence over emotional expression. *Bulletin of Educational Psychology*, 47(2), 243-259.
- De Leersnyder, J., Boiger, M., & Mesquita, B. (2013). Cultural regulation of emotion: Individual, relational, and structural sources. *Frontiers in Psychology*, 4, 55.
- De Leersnyder, J., Koval, P., Kuppens, P., & Mesquita, B. (2018). Emotions and concerns: Situational evidence for their systematic co-occurrence. *Emotion*, 18(4), 597-614.
- Dere, J., Falk, C. F., & Ryder, A. G. (2012). Unpacking cultural differences in alexithymia: The role of cultural values among Euro-Canadian and Chinese-Canadian students. *Journal of Cross-Cultural Psychology*, 43(8), 1297-1312.
- Dere, J., Tang, Q., Zhu, X., Cai, L., Yao, S., & Ryder, A. G. (2013). The cultural shaping of alexithymia: Values and externally oriented thinking in a Chinese clinical sample. *Comprehensive Psychiatry*, 54(4), 362-368.
- Dion, K. L. (1996). Ethnolinguistic correlates of alexithymia: Toward a cultural perspective. *Journal of Psychosomatic Research*, 41(6), 531-539.
- Eastabrook, J. M., Flynn, J. J., & Hollenstein, T. (2014). Internalizing symptoms in female adolescents: Associations with emotional awareness and emotion regulation. *Journal of Child and Family Studies*, 23, 487-496.
- Glazer, T. (2020). To express or not to express? Ambivalence about emotional expression. In *The Philosophy and Psychology of Ambivalence: Being of two minds* (pp. 175-196). Routledge.
- Gordon, S. L. (1989). Institutional and impulsive orientations in selective appropriating emotions to self. In D. D. Franks & D. McCarthy (Eds.), *The sociology of emotions: Original essays and research papers* (pp.115-136). JAI Press
- Grandey, A. A., Fisk, G. M., & Steiner, D. D. (2005). Must "service with a smile" be stressful? The moderating role of personal control for American and French employees. *Journal of Applied Psychology*, 90(5), 893-904.
- Gross, J. J. (1998). Antecedent-and response-focused emotion regulation: Divergent consequences for experience, expression, and physiology.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74(1), 224-237.
- Gross, J. J., & John, O. P. (2003). Individual differences in two emotion regulation processes: Implications for affect, relationships, and well-being.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85(2), 348-362.
- Gross, J. J. & Muñoz, R. F. (1995). Emotion regulation and mental health. *Clinical Psychology: Science and Practice*, 2(2), 151-164.
- Gross, J. J., & Thompson, R. A. (2007). Emotion

- regulation: Conceptual foundations. In J. J. Gross (Eds.). *Handbook of emotion regulation* (pp. 3-24). Guilford Press.
- Guo, X., Schwartz, S. J., & McCabe, B. E. (2008). Aging, gender, and self: Dimensionality and measurement invariance analysis on self-construal. *Self and Identity, 7*(1), 1-24.
- Hayes, A. F. (2022). *Introduction to mediation, moderation, and conditional process analysis: A regression-based approach*. Guilford publications.
- Helmes, E., McNeill, P. D., Holden, R. R., & Jackson, C. (2008). The construct of alexithymia: Associations with defense mechanisms. *Journal of Clinical Psychology, 64*(3), 318-331.
- Hoerl, A. E., & Kennard, R. W. (1970). Ridge regression: Biased estimation for nonorthogonal problems. *Technometrics, 12*(1), 55-67.
- Jobson, L., Whittles, N., Tsecoutanis, E., Raj, S., Yew, R. Y., & Haque, S. (2019). Investigating the mediating role of self-construal on the relationship between cultural group (Malay and Australian) and the characteristics and functional use of autobiographical memory. *Memory, 27*(8), 1054-1062.
- John, O. P., & Gross, J. J. (2004). Healthy and unhealthy emotion regulation: Personality processes, individual differences, and life span development. *Journal of Personality, 72*(6), 1301-1334.
- Kertzer, D. I. (1983). Generation as a sociological problem. *Annual Review of Sociology, 9*(1), 125-149.
- King, L. A., & Emmons, R. A. (1990). Conflict over emotional expression: Psychological and physical correlate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8*(5), 864-877.
- King, L. A. (1993). Emotional expression, ambivalence over expression, and marital satisfaction. *Journal of Social and Personal Relationships, 10*(4), 601-607.
- Kitayama, S., Mesquita, B., & Karasawa, M. (2006). Cultural affordances and emotional experience: socially engaging and disengaging emotions in Japan and the United State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91*(5), 890-903.
- Konrath, S., Grynberg, D., Corneille, O., Hammig, S., & Luminet, O. (2011). On the social cost of interdependence: Alexithymia is enhanced among socially interdependent people.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s, 50*(2), 135-141.
- Laloyaux, J., Fantini, C., Lemaire, M., Luminet, O., & Larøi, F. (2015). Evidence of contrasting patterns for suppression and reappraisal emotion regulation strategies in alexithymia. *The Journal of Nervous and Mental Disease, 203*(9), 709-717.
- Le, B. M., & Impett, E. A. (2013). When holding back helps: Suppressing negative emotions during sacrifice feels authentic and is beneficial for highly interdependent people. *Psychological Science, 24*(9), 1809-1815.
- Le, H. N., Berenbaum, H., & Raghavan, C. (2002). Culture and alexithymia: Mean levels, correlates and the role of parental socialization of emotions. *Emotion, 2*(4), 341-360.

- Lee, Z. N. (1999). Korean culture and sense of shame. *Transcultural Psychiatry*, 3(2), 181-194.
- Levant, R. F., Hall, R. J., Williams, C. M., & Hasan, N. T. (2009). Gender differences in alexithymia. *Psychology of Men and Masculinity*, 1(3), 190-203.
- Levenson, R. W., Carstensen, L. L., & Gottman, J. M. (1994). Influence of age and gender on affect, physiology, and their interrelations: A study of long-term marriage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67(1), 56-68.
- Lo, C. (2014). Cultural values and alexithymia. *Sage Open*, 4(4), 1-6.
- Lu, Q., Uysal, A., & Teo, I. (2011). Need satisfaction and catastrophizing: Explaining the relationship among emotional ambivalence, pain, and depressive symptoms. *Journal of Health Psychology*, 1(5), 819-827.
- Markus, H. R., & Kitayama, S. (1991). Culture and the self: Implications for cognition, emotion, and motivation. *Psychological Review*, 98(2), 224-253.
- Maroti, D., Lillengren, P., & Bileviciute-Ljungar, I. (2018). The relationship between alexithymia and emotional awareness: A meta-analytic review of the correlation between TAS-20 and LEAS. *Frontiers in Psychology*, 9, 453.
- Matsumoto, D., Yoo, S. H., & Fontaine, J. (2008). Mapping expressive differences around the world: The relationship between emotional display rules and individualism versus collectivism. *Journal of Cross-cultural Psychology*, 39(1), 55-74.
- Matsumoto, D., Yoo, S. H., & Nakagawa, S. (2008). Culture, emotion regulation, and adjustment.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94(6), 925-937.
- McCrae, R. R., & Costa Jr, P. T. (1988). Age, personality, and the spontaneous self-concept. *Journal of Gerontology*, 43(6), S177-S185.
- Meganck, R., Vanheule, S., Inslegers, R., & Desmet, M. (2009). Alexithymia and interpersonal problems: A study of natural language use.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s*, 47(8), 990-995.
- Moriguchi, Y., Maeda, M., Igarashi, T., Ishikawa, T., Shoji, M., Kubo, C., & Komaki, G. (2007). Age and gender effect on alexithymia in large, Japanese community and clinical samples: A cross-validation study of the Toronto Alexithymia Scale (TAS-20). *BioPsychoSocial Medicine*, 1(1), 1-15.
- Mueller, J. H., & Ross, M. J. (1984). Uniqueness of the self-concept across the life span. *Bulletin of the Psychonomic Society*, 22(2), 83-86.
- Muller, D., Judd, C. M., & Yzerbyt, V. Y. (2005). When moderation is mediated and mediation is moderated.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89(6), 852-863.
- Müller, J., Bühner, M., Ziegler, M., & Şahin, L. (2008). Are alexithymia, ambivalence over emotional expression, and social insecurity overlapping constructs?. *Journal of Psychosomatic Research*, 64(3), 319-325.
- Nils, F. & Rimé, B. (2012). Beyond the myth of venting: Social sharing modes determine the benefits of emotional disclosure. *European Journal of Social Psychology*, 42(6), 672-681.
- Oyserman, D., Coon, H. M., & Kimmelmeier, M. (2002). Rethinking individualism and

- collectivism: Evaluation of theoretical assumptions and meta-analyses. *Psychological Bulletin*, 128(1), 3-72.
- Quinton, S., & Wagner, H. L. (2005). Alexithymia, ambivalence over emotional expression, and eating attitudes.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s*, 38(5), 1163-1173.
- Ryder, A. G., Sunohara, M., Dere, J., & Chentsova-Dutton, Y. E. (2018). The cultural shaping of alexithymia. In O. Luminet, R. M. Bagby, & G. J. Taylor (Eds.), *Alexithymia: Advances in research, theory, and clinical practice* (pp. 33-48). Cambridge University Press.
- Shim, T. Y. J., Kim, M. S., & Martin, J. N. (2008). *Changing Korea: Understanding culture and communication* (Vol. 10). Peter Lang.
- Sifneos, P. E. (2000). Alexithymia, clinical issues, politics and crime. *Psychotherapy and Psychosomatics*, 69(3), 113-116.
- Singelis, T. M. (1994). The measurement of independent and interdependent self-construals.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Bulletin*, 20(5), 580-591.
- Spitzer, C., Siebel-Jürges, U., Barnow, S., Grabe, H. J., & Freyberger, H. J. (2005). Alexithymia and interpersonal problems. *Psychotherapy and Psychosomatics*, 74(4), 240-246.
- Subic-Wrana, C., Beutel, M. E., Brähler, E., Stöbel-Richter, Y., Knebel, A., Lane, R. D., & Wiltink, J. (2014). How is emotional awareness related to emotion regulation strategies and self-reported negative affect in the general population?. *PloS one*, 9(3), e91846.
- Sun, M. & Lau, A. S. (2018). Exploring cultural differences in expressive suppression and emotion recognition. *Journal of Cross-Cultural Psychology*, 49(4), 664-672.
- Tamres, L. K., Janicki, D., & Helgeson, V. S. (2002). Sex differences in coping behavior: A meta-analytic review and an examination of relative coping.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Review*, 6(1), 2-30.
- Taylor, G. J. (1984). Alexithymia: Concept, measurement, and implications for treatment. *The American Journal of Psychiatry*, 141(6), 725-732.
- Taylor, G. J. (2000). Recent developments in alexithymia theory and research. *The Canadian Journal of Psychiatry*, 45(2),
- Triandis, H. (1988). Collectivism vs. individualism: A reconceptualization of a basic concept in cross-cultural social psychology. In G. K. Verma & C. Bagley (Eds.), *Cross-cultural studies of personality, attitudes and cognition* (pp. 60-95). St. Martin Press.
- Triandis, H. C., Leung, K., Villareal, M. J., & Clack, F. I. (1985). Allocentric versus idiocentric tendencies: Convergent and discriminant validation. *Journal of Research in Personality*, 19(4), 395-415.
- Vanheule, S., Desmet, M., Meganck, R., & Bogaerts, S. (2007). Alexithymia and interpersonal problems. *Journal of Clinical Psychology*, 63(1), 109-117.
- Wellenkamp, J. (1995). Cultural similarities and differences regarding emotional disclosure: Some examples from Indonesia and the Pacific. In J. W. Pennebaker (Eds.), *Emotion*,

- Disclosure, & Health* (pp. 293-311). 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
- Yamada, A. M., & Singelis, T. M. (1999). Biculturalism and self-construal. *International Journal of Intercultural Relations*, 23(5), 697-709.
- Yeung, D. Y., Fung, H. H., & Lang, F. R. (2008). Self-construal moderates age differences in social network characteristics. *Psychology and Aging*, 23(1), 222-226.

논문 투고일 : 2023. 02. 14

1 차 심사일 : 2023. 03. 13

게재 확정일 : 2023. 05. 01

The Relationship between Cultural Self-construal of Korean and Alexithymia: A Serial Mediation Process Model of Ambivalence over Emotion Expression and Emotion Suppression Moderated by Generation

Haejin Kim¹⁾ Soyoung Kwon¹⁾ Sunho Jung²⁾ Donghoon Lee¹⁾

¹⁾Pusan National University

²⁾Kyung Hee University

The traditional Korean society has been classified as an Eastern collectivist culture, but in the flow of globalization and digitalization along with the post-Cold War era of the 1970s, Western individualistic culture and values quickly permeated the Korean younger generation. Since rapid changes occurred within a short period of time, there may be differences in cultural self-construal between generations living in the same era. Due to this, psychological problems related to emotional expression and suppression may appear differently depending on generations. Therefore, in the current study, 1,000 Korean adult men and women from their 20s to 60s were investigated for their level of independent and interdependent self-construal, alexithymia, ambivalence over emotional expression(AEE) and emotional suppression(ES). Then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variables(self-construal and alexithymia,) and the mediating process of AEE and ES were examined. The generation of participants were divided into the industrialization cohort (birth year < 1970) and the digitalization cohort (birth year starting from 1970). Using the PROCESS macro(Hayes, 2022), we tested a serial mediation model of AEE and ES between the relative independent self-construal(RIS) and alexithymia. The results indicate that the level of alexithymia increases by the serial increase of AEE and ES when RIS decreases. Next, we examined a moderation effect of generation on the mediation process of AEE and ES, and found that generation moderates the relationship between ES and alexithymia. That is, the effect of ES on alexithymia is significant for the digitalization cohort, while it is not significant for the industrialization cohort. The current results imply that emotion regulation strategies of Koreans have been differently developed according to prevailing cultural values in each generation, and that the negative influence of emotion suppression could be different according to the cultural background of each generation.

Key words : self-construal, alexithymia, emotion suppression, ambivalence over emotional expression, moderated mediation Effect, generation